멕시코 여객기 추락에도 탑승자 전원 생존

멕시코 북부 두랑고주에서 여객기가 이륙한 지 몇 분 되지 않아 추락했지만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두고 "놀라운 생존 스토리" 라고 전했다. 이 여객기에는 승무원 4명과 아기 2명 등 103명이 탑승했다.

사고는 지난 31일 오후 4시 무렵 과달루페 빅토리아 국제공항을 떠나 멕시코시티로 향하던 아에로멕시코 소속 여객기 엠브라에르-190 기종이 이륙 직후 이상을 일으키면서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AFP 기자는 사고 지점에 연기가 자욱하며 경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탑승객 수십 명이 여객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기체가 화염에 휩싸이기 전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사전 조사에선 악천후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멕시코 연방교통부와 목격자들도 해당 여객기가 폭풍 속에서 이륙을 강행했다며 이날 심지어 구슬 크기의 우박이 날아다녔다고 전했다.

" 대디 대신 아버지" … 동남아 국가 한류 확산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국-아세안(ASEAN · 동남아국가연합, 2011년 구성된 연례 회의체로 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메콩 5개국) 연쇄회의에 참석한 각국 장관들이 K팝과 드라마 등 '한류' 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다.

1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초 틴 미얀마 국제협력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미얀마 내 한류 열풍이 대단하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을 많이 보고 듣는다." 며 "젊은이들이 '대디' (DADDY) 대신 '아버지' 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한류가) 확산해 있다." 고 말했다.

초 틴 장관은 이어 "소규모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도와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밝혔다.

사이푸딘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교장관도 강 장관과 양자 회담에서 "K팝이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유행" 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가 K팝 아이돌처럼 잘생기지는 않았다." 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강 장관은 양국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반기며 "양국 국민이 한국 드라마, K팝, 한국어 등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이런 문화 교류가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본다." 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아울러 이들 장관과 회담에서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 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상호 간 인적 ·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독일 맥주업계, 무더위 반색 … 맥주 수요 폭발 증가

독일 맥주 업계가 올여름 닥친 무더위에 함박웃음을 지었다. 무더위로 맥주 수요가 늘면서 맥주병 부족현상까지 발생했다. 올해 독일의 6, 7월 평균기온은 예년보다 각각 2.4도, 3.3도나 높았다.

지난 31일 영국 BBC에 따르면 맥주 회사 모리츠 피게는 자사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여름 휴가를 가기 전, 조속히 빈 병을 상점에 갖다 달라." 고 호소했다. 맥주 수요를 맞추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맥주 가격에 병 보증금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이 다 마신 병을 반납하고 돈을 돌려받는다. 또 맥주 회사들이 캔 대신 회사별로 특색있는 유리병에 맥주를 담아 파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병이 부족하면 쉽게 다른 용기로 대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독일맥주협회 대변인도 병 부족 사태가 올해 "유난히 두드러진다." 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우승후보로 꼽히던 독일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월드컵 특수' 를 누리지 못한 상황에서 무더위는 맥주 업계에 호재가 되고 있다. 월드컵에서 독일의 성적이 좋았던 2010년과 2014년에는 맥주 판매가 4% 증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통일 후 최악의 판매부진을 비롯해 최근 몇 년 간 침체를 겪어온 독일 맥주업계가 폭염으로 활기를 찾고 있다.